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2만 달러... 강달러에 7.7% 감소

한은 '2022년 4분기 국민소득'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영향
원화 기준 4420만원, 4.3% 올라
실질 국내총생산은 2.6%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에 머물렀다. 1년 전과 비교해 7.7%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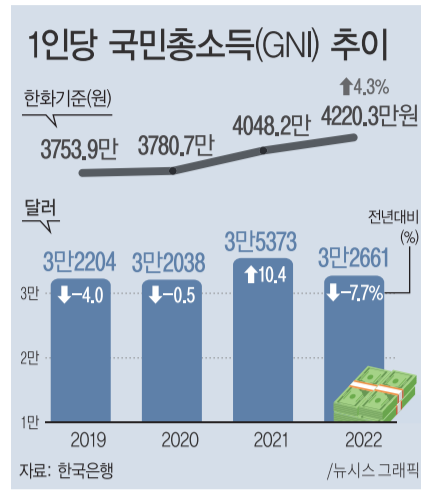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국 달러화 기준 전년 대비 7.7% 감소한 3만2661달러(약 4220만원)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평균 국민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지표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1292원으로 1년 전(1144원)과 비교해 12.9% 상승(원



최정태(왼쪽 두번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최정태 국민계정부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이상협 국민소득총괄팀 과장. /뉴시스



화 가치 하락)했다.

때문에 원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422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7.7% 감소했다.

다만 한은은 이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통상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은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평균 5

년 걸린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향후 2~3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2%내외로 상승하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10년 평균인 1145원으로 유지돼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성장에 진입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소득 4만달러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6%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1.4% 올라 1년전(6.9%)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4.2%로 전년(3.8%)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 외 설비투자가 각각 -3.5%, -0.5% 감소하고, 수출(3.2%)과 수입(3.7%)의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민간소비가 4.3%로 소폭 늘었다.

다만 실질 GDP를 분기별로 보면 1분

기(0.6%), 2분기(0.7%), 3분기(0.3%)를 나타내다 4분기 0.4%로 역성장했다.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2분기(-3%)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4분기 GDP가 감소한 이유는 민간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의류 및 신발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줄며 전분기 대비 0.6% 감소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핀테크 계좌개설 허용 등 금융권 진입장벽 완화 필요”

핀테크 금융권 진입 완화 간담회 권대영 “실질경쟁으로 파이 키워야”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실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확대하고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핀테크기업들은 우선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프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핀테크에 특화되고 있는 분야(소상공인, 금융이력부족자)에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수행하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결제 목적을 용도가 한정된 계좌 개설을 허용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률이 높은 자동차보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중 핀테크 금융업 진입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14일에는 2차간담회: 데이터 분야의 이슈(마이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3차간담회: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빅데이터, 온라인판매)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누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외식업자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캐시백

하나은행은 외식업자와 상생하기 위해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CASHBACK)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3고 현상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은행의 수익 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폭 넓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피자재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종을 먼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외식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최대 1백만원)을 캐시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월 대출이자를 정상 납부중인 NICE CB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외식업 자영업자는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매월 나눠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게 된다.

이번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하나은행에 기업대출을 보유중인 전국의 외식업 자영업자 모두에게 일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산테스트를 거쳐 오는 4월 중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식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IBK기업은행 ‘해내리대출’ 통해 소상공인 금리지원

IBK기업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지역 특산물 생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해내리대출’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1.2%포인트(p)의 대출금리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해내리대출’은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상품으로 2020년 1월 출시 후 현재까지 약 5조 8000억원이 공급됐다. 원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등 운영자금과 더불어 시설투자 목적으로도 지원되는 게 특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신한은행, 업계 대표 ‘금융소비자보호 사례’ 공유

금감원 실태평가서 ‘양호’ 등급 은행업권 대표로 우수사례 발표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은행업권을 대표해 13개 은행 소비자보호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 발표는 ▲일관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상품완전 판매 준수를 위한 활동 ▲은행권 최초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스 조직 운영 ▲같이 성장 성과 평가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자산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 ATM 거대 중 휴대전화 통화, 선글라스·헬멧 착용 등 이상행동을 탐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신한은행 류동우 소비자보호부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신한은행

지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AI 이상행동탐지 ATM’을 전국 영업점에 확대 운영한 점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은행이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할 가

치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며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